

〈옥수기〉에 형상화된 이국(異國), 중국(中國)

탁원정*

<차 례>

1. 서론
2. 〈옥수기〉에 형상화된 중국(中國)
3. 〈옥수기〉에 형상화된 중국(中國)의 특징
4. 개별적 경험에 근거한 이국취향의 형상화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고소설의 중국 배경이 이국취향의 한 양상이라는 전제 하에, 19세기 작품인 〈옥수기〉의 중국 형상화 양상을 특징짓고, 나아가 이를 19세기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옥수기〉의 중국 형상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옥수기〉에는 북로의 침입 과정에서 명나라를 대표하는 한족(漢族)과 북방 오랑캐를 대표하는 호족(胡族)을 의도적으로 구분하는 호칭이나 상호간의 인식을 드러내는 언급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혼례와 관련하여 호족과 한족의 문화가 대비되는 등 전쟁보다 두 민족의 성향이나 문화가 초점화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호족 공주와 부마의 결혼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는 여지없이 호족에 대한 폄시와 멸시를 담은 경직된 시각이 드러난다. 그러나 호족이라도 인지상정은 같거나 화이를 불문하고 빼어난 사람이 있다는 인물의 발화를 거쳐, 호족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었던 황후가 궁중 균례 과정에서 두 호국공주에 대해 경탄을 하는 장면을 정점으로 호족에 대한 유연한 시각으로 전환되고 있다.

〈옥수기〉에는 중국 전 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주인공들의 동선(動線) 또한 대부분 지리지적 사실에 근거하여 배치되고 있으며, 지역 간의 거리와 소요

* 한경대 강사

시간 등도 강조되어 나타난다. 이는 지리 설정에 사실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히 역사적, 관습적 공간의 비중이 약화되고, 이 자리에 북경이나 요동과 같은 당대의 현실적인 공간들이 교차되어 들어서 있다. 특히 요동의 부각과 함께 다른 변방 지역은 제거되고 북방 위주의 변방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옥수기>에는 남녀 인물의 결연 과정에서 당대 사회의 혼례 풍속이 두드러져 나타나는 한편, 진회라는 특정 지역의 풍속이 전경화되기도 한다. 이때 진회는 명대 진회라는 지역이 지니는 사실적인 특성을 매개로 하여 유흥과 풍류의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이 공간을 정점으로 시와 음악의 창작과 비평, 술자리의 여흥이 작품 전반에 출렁이게 된다. 또한 이를 향유하는 주체나 그 향유의 대상과 양상이 사족 남성과 그 일상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옥수기>에 형상화된 풍속은 사족 남성의 유흥적 일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옥수기>에서 호족에 대한 유연한 시각이 드러나는 것은 18세기부터 본격화된 연행을 통해 화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게 시대적 분위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옥수기>에 북경이나 요동과 같은 당대적 현실 공간의 비중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연행의 경로이던 이들 지역에 관심이 집중된 당시 정황과 일정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옥수기>에는 녹앵무가 중매의 역할을 하는 화소가 나타나는데, 이는 녹앵무나 <녹앵무경>이라는 책이 화제에 올랐을 18,9세기 당시의 정황을 환기한다. 또한 명청대의 유명한 흥등가였던 진회 지역의 풍속이 사실적으로 매개되어 작품 전반의 풍류를 관통하는 핵심 공간으로 축조되고 있는데, 절강의 소주나 항주가 아닌 금릉땅 진회가 선택된 것은 작가의 개인적 관심사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옥수기>의 중국 배경에 나타나는 이국취향의 특징은, 18,9세기의 시대적 동향에서 매개된 현실적 맥락의 동경이자 취향이라는 점이며, 동시에 작가 개인의 개별적인 경험과 인식에서 비롯된 관심사가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이국취향의 개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옥수기>의 중국 배경은, 역사나 정치와 같은 거대 담론보다는 그 땅에 존재하는 개인과 그 일상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과 개인의 경험을 중시하는 근대 이행기적 중국 배경의 한 양상이라는 시대적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이국취향, 유연한 시각, 사실적 지리 설정, 당대적 현실 공간, 유흥적 일상, 이국 취향의 개별화, 근대 이행기

1. 서론

명을 비롯해 宋, 唐 등 중국의 역대 국가들이 고소설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양상이다. 이는 특히 애정전기를 비롯해 <구운몽>,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숙향전>, <소현성록> 등 17세기 작품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때 중국은 단순히 시대적 배경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간 배경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본격적인 소설의 등장부터 중국이 시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되고, 이것이 일종의 전통 혹은 관습처럼 이후의 고소설 일반에서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19세기 한문소설 <절화기담>의 평비자 남화자(南華子)가 쓴 글은 주목할 만하다.

패설은 대개 중국 것을 숭상하나 중국 것이 우리나라 것보다 나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그러해서,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즐겁게 여기고 옛 것을 좋아하며 요즘 것은 별로 좋지 않게 여기며, 먼 데 것을 좋아하고 가까운 것은 싫어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만의 병폐가 아니라 온 천하가 함께 가지고 있는 병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지으면 꼭 중국의 일을 쓰고는 반드시 “우리나라에는 볼 게 없다”고 한다.¹⁾

이는 19세기까지 유지되던 중국 배경의 관행을 비꼬는 것이지만, 그 속에 당대인의 눈으로 파악한 중국 배경의 이유가 적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경험하지 못한 먼 이국과 과거에 대한 선호 때문이며, 이는 곧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현대 연구자들 또한 중국 배경과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중국 문명에 대한 동경과 이국 풍물에 대한 호기심

1) 稗說蓋尙華，非華勝東，人情固然，輒以未聞睹爲快，好古非今，樂遠厭近。非東之病，乃天下同病。東人著說，必用夏，必曰，“東無觀焉。” <절화기담> 追序, 김경미, 조혜란 역주, 『19세기 서울의 사랑-절화기담, 포의교집』, 도서출판 여이연, 2003, p.93.

충족이다.²⁾

고소설의 중국 배경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지목된 동경과 호기심, 나아가 지향 의식 등은 곧 이국취향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있다.³⁾ 서구 낭만주의 시대의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기도 했던 이국취향(엑조티즘, exoticism)은, 본래 인간이 주어진 현실 밖의 일을 생각하거나 그것을 좇는 마음가짐에서 유래된 말로, 그 범위는 이국의 신기하고 특이한 사고방식이나 그 풍속에 대한 관념적인 선호와 도취에서부터 자유롭게 그것을 향유하는 생활까지 포함한다.⁴⁾

실제 17세기 애정전기의 중국 배경에 대해, 당시 문인들 사이에서 만연한 강남 지역, 특히 절강 유역의 서호에 대한 이국정서와 동경이 투영된

2) 이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한 김태준은 당시 작가들이 중국 소설을 심독한 후 그것을 모방하여 자신이 동경하며 이상화한 인물과 지명을 그대로 기록했다고 하였고, (김태준, 『증보조선소설사』, 박희병 교주, 한길사, 1990, p.20.) 우쾌제는 중국 역대의 문학 작품 등을 통한 간접체험이라도 독자들의 무지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면 가능한 이국의 지명과 풍속, 역사 등을 그대로 원용해 왔다고 했다. (우쾌제, 「〈南征記〉의 南征路에 나타난 西浦의 中國 認識 考察」, 『국어국문학』 115, 국어국문학회, 1995, p.79.)

3) 이국취향을 규정짓는 이국에 대한 호기심, 동경, 지향 의식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차원의 개념들이다. 실제 서구 낭만주의의 이국취향이 대체로 낯선 곳에 대한 호기심이나 동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고소설의 중국 배경은 그보다는 낯익은 곳에 대한 동경과 지향 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다분하다. 이국취향의 대상인 중국이 당대인들에게 단순한 이국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의식 지향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이국취향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고소설의 작가를 포함한 당대인들에게 중국에 대한 호기심은 일반적인 차원의 호기심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저곳이지만 의식적으로는 이곳인, 그래서 실제 가 보지는 않았지만 가 본 것 같은 경험과 의식의 거리 사이에서 그 거리를 합치시키고자 하는 과정이 곧 이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고에서는 당대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호기심과 동경, 지향 의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총체로서 이국취향이라는 개념을 쓸 것이다.

4) 손우경, 『Baudelaire의 Exotisme 연구』, 『연구 논문집』 40, 효성여자대학교, 1990, p.56.

것으로 본 견해⁵⁾도 있었으며, 그 밖에 중국을 배경으로 한 고소설의 대부분이 직접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상상을 통해 창작되었다는 것이나, 시대적으로도 창작 당대의 중국이 아닌 역대 중국, 곧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 등은 모두 서구 낭만주의의 이국취향과 닮아 있다.⁶⁾ 이런 점에서 고소설의 중국 배경은 우리 문학에 나타난 이국취향의 대표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 대상이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 집중되는 점은 서구 낭만주의의 이국취향과 변별되는 면모라 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중국이 당대인들에게 역사적, 정치적인 의식 지향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런 점에서 고소설의 중국 배경에는 작가 개인의 취향 이전에 작가가 속한 집단의 의식 성향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 배경에 대한 연구가 대체로 역사와 정치의 측면에서 이루어져 온 것 또한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이는 곧 공간적 배경으로서의 중국이 아닌, 시간적 배경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중국은 대체로 조선의 정치와 역사로 환원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근대 이행기인 19세기에 나타난 중국 배경 소설이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이런 평가는 지식인 작가에 의해 창작된 일련의 한문장편소설과 관련해 두드러지는데⁷⁾, 이 시기

5) 정민, 「16,7세기 조선 문인지식인층의 江南熱과 西湖圖」,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6) 고전주의 이후로 많은 작가들이 상상으로 이국을 묘사해 왔고, 19세기에 와서도 여전히 위고는 그리스와 근동을, 발자크는 이집트를 가보지 않고도 훌륭하게 묘사했다. 또한 특히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프랑스 낭만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다른 곳'에 대한 열정이 고조되어 있었으며, 시간적으로도 과거에 집착하여 시간의 이국취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산호, 「샤또브리앙의 낭만주의적 이국취향 연구」, 『프랑스학 연구』 20권, 2001, 프랑스학회, pp.143-144.

7) 이기대는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의 중국 배경이 당시 소설 경향에 비추어 고답적이며,

에 <절화기담(折花奇談)>이나 <포의교집(布衣交集)>처럼 과거의 중국이 아닌 현재의 조선과 그 세태를 다루는 한문소설⁸⁾이 나타남으로써 더욱 대비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에 있어 19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중국 문화와 체험에 대한 동경이 고조되었던 시기이다.⁹⁾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연행 체험과 그 기록들, 사적·공적으로 유입된 많은 문물과 서적들, 그리고 명칭 문인들의 문화적 취향에 대한 동경 등¹⁰⁾이 이 시기 중국에 대한 이국취향을 더욱 고조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의 작가들은 이와 같은 시대적 동향의 최전방에 있었던 만큼¹¹⁾, 작품의 중국 배경 또한 이런 동향과의 관련 하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럴 때 역사와 정치라는 시간에 긴박되어 드러나지 않았던 중국 배경의 새로운 면모와 의미가 포착되지 않을까 한다.

본고는 이런 전제 하에, 19세기 중반기 한문장편소설인 <옥수기>를 대상으로, 인물, 지리, 풍속의 세 측면¹²⁾에서 중국 형상화 양상을 특징짓고,

나아가 소설 발전과도 거리 있는 현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의도적으로 역사적 공간을 채택한 것으로 보았다. 이기대, 『19세기 한문장편소설 연구-창작 기반과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pp.43-44.

- 8) 김경미, 조혜란 역주, 앞의 책.
 9) 서경희, 『<옥선몽>연구-19세기 소설의 정체성과 소설론의 향방』,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4, pp.18-19.
 10) 남정희, 『조선후기 문인의 明·淸 서적 수용과 독서의 경향성 試考』, 『한국문화연구』 8,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1999.
 11) 김경미에 의하면, 한문장편소설 작가들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소외된 위치에 있거나 주변적 인물이었다 할지라도 문화적으로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관료적인 삶이나 처사적인 삶을 살기보다 문화 활동을 위주로 살았던 인물들이다. 김경미, 『19세기 한문소설의 새로운 모색과 그 의미』, 『한국문학연구』 창간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0, pp.216-218.
 12) 시간적 배경이 아닌 공간적 배경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중국이라는 공간을 구성

나아가 19세기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옥수기>는 특히 작자 심능숙과 밀접한 작품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국취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유효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¹³⁾

2. <옥수기>¹⁴⁾에 형상화된 중국(中國)

1) 한족(漢族)과 호족(胡族)의 구분

<옥수기>는 명나라 현종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현종은 중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의 하나인 토목지변(土木之變)의 당사자였던 영종의 아들이며, 작품 속에서는 복위한 영종과 달리 현종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北虜에 대한 공납이 전에 못 미치는 것에 노한 마선(乜先), 엄답(俺答)이 다시 명의 변경을 침입하는 사건이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북로의 침입 과정에서 명나라를 대표하는 한족(漢族)과 북방 오랑캐를 대표하는 호족(胡族)에 대한 다양한 서술과 묘사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대표적 요소인 인물과 지리, 풍속을 기준으로 하였다.

- 13) <옥수기>의 중국 배경에 주목한 기존의 논의 또한 대부분 작가의 정치적 이념과 시대 인식 등의 시간적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이병직, 「19세기 한문장편소설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1. 조광국, 「19세기 고소설에 구현된 정치이념의 성향-<옥루몽>, <옥수기>, <난학몽>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6, 한국고소설학회, 2003. 이기대, 앞의 논문), 중국 배경이 아닌 작품 자체에 주목하는 경우에는 19세기의 문화적 동향과 관련하여 이념이 아닌 문화와 인물, 일상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경미, <옥수기>연구-이념적 요소에 대한 해석과 새로운 모색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 14)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家庭家門小說』(장효현 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pp.193-430)에 실린 교감분을 대본으로 한다. 이후 인용에서는 작품의 면수만 밝히겠다.

“상공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이오의 요술에 비할 것이 못 됩니다. 胡人이 궁마(弓馬)만을 믿고 급히 나아오고 쉽게 물러나니 어찌 묘법(妙法)을 알겠습니까?” / “그러나 胡兒는 변덕이 심하고 의심이 많습니다.”¹⁵⁾

관군이 크게 일어남을 듣고 웃으며 “漢兒가 싸움을 겁내니 그 진 치기를 기다려 칠기로 짓밟으면 불가한 일이 없을 것이다.” / 마선이 웃으며 “漢兒는 단지 진으로 싸우는 것만 배웠으니 지금 이후는 패병을 쫓지 않는다면 미천지진(彌天之陣)이 있어도 무엇이 두렵겠는가?” / 엄답이 웃으며 “저들 또한 눈이 있어 너의 미모를 보고 차마 서로 싸우지 못한 것이니 漢兒가 원래 정이 많다.”¹⁶⁾

이는 각각 한족과 호족이 상대 민족을 부르는 호칭과 상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족과 호족은 상대에 대해 자신감을 전제로 한 낮춰보기를 하고 있다. 한족은 호족의 전술에 대해, 호족은 한족의 전술에 대해 비웃고 있으며, 한수 위의 입장에서 상대 민족의 성향을 꼬집기도 한다. 마선과 엄답의 발화에 계속해서 ‘웃으며’가 붙는 것은 이를 잘 드러내 준다.

이 북로와의 접전 과정에서 대원수 가유진은 엄답의 두 딸 백룡, 연연 공주를 자신의 동생이자 천자의 부마인 가유겸과 혼인시킴으로써 엄답의 항복을 받는 계교를 내어 이를 성사시키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호족과 한족의 혼례 풍습이 비교되어 나타난다.

15) “相公勿憂，此非李五妖術之比，胡人恃其弓馬，急進易退，豈知妙法”(337면) / “然胡兒反覆多疑”(345면)

16) “漢兒恟戰，待其出陣，以鐵騎蹂之，無所不可”(338면) / 乚先笑曰，“漢兒只學鬪陳，從今以後，勿追敗兵，則渠有彌雖天之陣，我何懼哉”(338면) / 俺答笑曰，“彼亦有眼，見女之美，不忍相戰，漢兒原來多情”(342면)

실달이 고하기를 “北俗에 新人이 오는 날로서 장부가 반드시 얼굴로 맞아 面信의 예를 삼으니 대장군께서는 이를 명하십시오”¹⁷⁾

가유진이 “누가 두 공주의 중매를 썼는가? 이제 공주가 中原에 들어왔으니 마땅히 中華 儀禮를 따라야 할 것이다. 남자는 중매를 할 수 없으니…중략…너희 胡人이 어찌 漢禮를 알리오?”¹⁸⁾

전자는 면신지거(面信之舉) 혹은 면신지례(面信之禮)라는 말로도 지칭되는 호족의 혼례 풍습으로 한족의 친영(親迎)과 대비되고 있으며, 이에 가유진이 별도로 장막을 배설하고 두 공주를 맞아오게 한다. 후자는 중국 풍속에서는 여성만이 중매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전해 들은 엄답은 “내가 거의 잊어서 中原 사돈가에 망신을 당할 뻔했다.”¹⁹⁾고 한다.

또한 전쟁과 전쟁 이후의 일종의 모의전투인 궁중 군례시에 호족 공주의 외양 묘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깃발 아래로 두 여장수가 말을 나누어 타고 나타났는데, 나이는 대략 십오륙 세 정도로, 눈썹이 푸르고 입술이 붉으며 허리가 가늘고 등은 곧으며, 얇은 갑옷 위에 수놓은 가죽옷을 입고 활과 화살을 몸에 지니고 손에 보검을 잡고, 하나는 홍설마를 타고 하나는 오운총을 타고……²⁰⁾ /

꽃 같고 달 같은 여장군이 나아왔는데, 그림 같은 눈썹과 별 같은 눈이며 붉은 입술과 반짝이는 보조개에, 뽀얀 입술이 가벼운 기러기 같고 춤추는 난초 같아, 허리에 보궁(寶弓)을 차고 오른쪽에는 금전(金箭)이 있으며, 구슬 옷과 수놓은 치마로 손에 아로새긴 창을 잡고 한 마리 연홍마를 탔으니…²¹⁾/ 진주

17) 悉達告曰, “北俗以新人到日, 丈夫必面會, 以爲面信, 唯大將軍命之”(347면)
18) “兩公主媒人爲誰, 今公主入中原, 宜用中華儀禮, 男人不可爲媒…中略…汝胡人豈知漢禮耶”(348면)
19) “吾幾忘之, 見侮於中原查家矣”(348면)
20) 旗下兩員女將, 分馬而出, 年可十五六, 眉翠脣紅, 腰細背直, 細鎧繡襖, 弓箭隨身, 手執寶刀, 一騎紅雪馬, 一騎烏雲驄 (339면)

같고 옥 같은 여장군이 어깨가 소소하며 허리가 가늘고 눈썹은 웃는 듯하여 초승달이 막 뜬 것 같으니, 그 풍염함은 매우 탐스럽고 그 밝은 광채는 서로 비치는 듯하다. 허리에는 자개로 만든 활을 두르고 흰 깃털을 몸에 붙였으며, 구슬 바지에 보배 치마로 손에 보검을 빗겨 들고 한 마리 분운총을 탔으니...²²⁾

전자는 전쟁시의 외양 묘사이고, 후자는 궁중 군례시의 외양 묘사이다. 두 경우 모두 얼굴은 물론 어깨와 허리 등 몸매까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옥수기>에는 가유진과 결연을 맺는 3처 4첩의 여성들을 비롯해, 가유진 형제들과 결연을 맺는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며, 이들은 하나같이 뛰어난 미모를 지닌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앞에서 예시한 호족 공주, 즉 백룡과 연연 두 자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족 여성들이며, 이들의 외양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미인조차도 낙포선녀나 서시에 비유되거나 그저 미인으로 지칭될 뿐이다. 호족 여성의 경우 얼굴이나 몸매까지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과정에서 그 아름다움이 현실로 다가오는 데 비해, 한족 여성의 경우는 관습적인 묘사로 일관되면서 관념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데 그치고 있다. 물론 호족 여성들의 구체적인 외양 묘사도, 실전이든 모의 전쟁이든 여장군으로 출전하는 경우, 즉 대중 앞에 노출된 경우이고 이후 가씨 집안의 여성으로 돌아가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족이든 호족이든 기본적으로 집 안의 여성에 대해서는 외양 묘사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궁중 군례라는 동일한 노출 상황에서도 호족 여성에 대해서만 외양 묘사가 구체적이라는 점은, 한족 여성과 호족 여성에 대한 구분된 인식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²³⁾

21) 如花如月之女將軍而來，畫眉星眸，丹脣寶鬢，翩若輕鴻，宛若舞鸞，要帶寶弓，金箭在左，珠衣繡裳，手執雕戈，騎着一匹軟紅馬 (363면)

22) 如珠如玉之女將軍，肩竦腰細，眉笑月開，豐若可啖，皎若相照，腰掛貝弓，白羽隨身，珠袴寶裳，手橫寶刀，坐下一匹嘖雲驄 (364면)

2) 전 지역적 분포와 사실적 지리 설정

<옥수기>에는 서두의 절강 태주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중국 명대의 지명이나 지리 관련 언급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북부부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요양(遼陽), 요동(遼東)

북경-북평(北平) /자금성-동화문(東華門), 오문(午門), 서화문(西華門),
/ 자형관(紫荊關), 선부(宣府)

산동성-신성(新城)

산서성-태원(太原)

섬서성-연안(延安)

감숙성-농서(隴西)

강소성-금릉(金陵), 진회(秦淮), 강회(江淮), 영릉(零陵), 오군(吳郡), 서주(徐州)/ 회(淮)수, 연자기(燕子磯)호

절강성-태주(台州), 선거현(仙居縣), 처주(處州), 소흥(紹興)/섬계(剡溪), 팔창산(括蒼山), 천태산(天台山)

[동백산(桐栢山) 동소남(董邵南)의 廟]

호남성-악주(岳州), 남악(南岳), 형양(衡陽)

강서성-광신부(廣信府), [마고산(麻姑山)], 용호산(龍虎山)

광동성-조주(潮州), 애주(崖州)

운남성-운남(雲南), 대리(大理), [송명주(嵩明州)]

23) 18세기 연행록 저자들이 내/외 개념에 의거해, 한족 여성과 달리 집 밖에 자주 노출되는 호족 여성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는 점(김현미, 『18세기 연행록 속에 나타난 중국의 여성, 이혜순 외 공저, 『우리 한문학사의 해외체험』, 집문당, 2006, p.313)과 연결해 본다면, <옥수기>에서 호족 여성에 대한 외양 묘사가 두드러진 것은 <옥수기> 창작 당시의 호족 여성과 한족 여성의 현실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족 여성의 외양 묘사가 아름다움을 그대로 재현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연행록 저자들이 지녔던 부정적 시각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요도와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옥수기>에는 북단 요동에서 남단 운남까지 그리고 극동의 태주에서 극서의 농서까지 중국 전 지역을 총망라하는 지리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강소성과 절강성 소재 지역들의 분포가 높게 나타난다.²⁴⁾

태주는 옛 양주땅이다. 뭇나라와 越나라의 도회요, 동남으로 경치가 아름다우니, 晉宋代 이후로 유명한 학자들이 배출되었고 재능이 뛰어난 才子들이 천하의 곳간을 이루었다. 태조 고향계께서 원나라를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리시매, 천하를 십삼성으로 나누시고, 특별히 절강성을 세워 태주를 부속시키셨다. 서쪽으로 처주를 접하고, 북쪽으로 소흥과 경계를 이루니, 인물로 말하면 유견오, 서중행, 방효유의 유평이 있고, 산천으로 말하면 팔창산, 금오산, 천태산 등의 명승지가 있다. 도읍이 부호하고 풍속이 온화하고 고상하다.²⁵⁾

인용문은 <옥수기>의 도입부로, 절강성 소재 태주에 대한 소개로 이루어져 있다. 절강 태주는 주인공 가남 집안의 세거지인 선거가 있는 곳으로, 태주에 부임한 화부와 주변의 소흥에 거주하는 경부과의 교류와 결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지리지와 흡사한 서술 속에서 태주의 역사적 연원과 인접 지역, 배출된 명사들과 명승지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태주에 대한 서술이 한 지역에 대한 보고라면, 남주인공 가유진과 정혼했다가 늑흔의 위기에 빠진 화소저의 시련 여정은 북경에서 광동성 조주까지, 중국 전역을 종단(縱斷)하는 것이다.²⁶⁾ 이와 같은 화소저의 여정에

24) 강남의 소주와 항주, 그리고 절강 항주의 서호 유역은 16,7세기부터 조선의 문인들에게 애호되었던 지역으로, 17세기 작품들에서도 주 배경으로 활용되었다.

25) 台州, 古之揚州也. 吳越都會, 東南佳麗, 自晉宋以來, 名碩輩出, 賢俊才子, 爲斗南府藏. 太祖高皇帝, 代元而有天下, 分天下爲十三省, 特立浙江省, 以台州府隸焉, 西接處州, 北界紹興, 人物則有庾肩吾·徐中行·方孝孺之遺風, 山川則有括蒼·金鰲·天台之名勝. 城邑富豪, 風俗和雅(193면)

서 주목되는 것은, 화소저의 여정이 강소성을 비롯한 강남 일대의 수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점이다.

홍교가 “첩의 아버가 수로에 익숙하니 수로로 급히 조주에 가 상공께 보고하고, 수로가 육로보다 빠르니 속히 다녀와 바로 소저를 가씨에게 돌아가도록 하면 부인이 어찌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운아가 “그건 그렇지 않아. 조주는 여기서 구천 리나 떨어져 있으니, 만약 갔다 오기를 기다리면 소저께서는 이미 아들딸 낳고 살고 있을 것이야.”라고 하였다. / “애주와 이곳 조주의 거리가 불과 천 리입니다”²⁷⁾.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화소저는 부친의 적소인 조주로 떠나기 전이나, 조주에서 애주로 떠나기 전에 시비들과 함께 수로를 탐색하면서 거리는 얼마나 되고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매번 배에 오를 때마다 오랜 여행에 대비하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²⁸⁾ 결국 애주로 향한 지 십여 일 만에 화소저 일행은 표풍을 만나 삼일밤낮을 표류하다가 진회에 정박하게 된다. 그런데 화소저의 여정에는 강남의 수로만이 아니라 중국 동부 해안의 해로와 관련된 언급도 나타난다.

“내 들으니 삼국시절의 손권이 사신을 보내어 바닷길로 요동에 이르러 공손강을 봉(封)하게 했다 하니, 조주와 요주 간의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운

26) 강소성 진회 → 강서성 광신부, 묘고산 → 광동성 조주 → 강소성 진회, 서주 → 북경

27) 紅嬌曰 “妾之父，素慣水路，可以水道急走潮州，報知相公，而水路捷於陸路，速速往返，亟歸小姐於嘉氏，則夫人無奈我何” 雲娥曰，“不然。婚事有晷夕之慮，潮州隔九千之路。若待往還，小姐幾生男抱女矣。”(207면) /崖州距此，不過千里(219면)

28) 처음 회수가에서 조주로 갈때, 두관가는 강가 상점에서 비단과 건어물, 말린 과일 등을 많이 사서 배에 올랐으며, 이후 조주에서 다시 애주로 향할 때도 두관가는 친한 상인을 찾아가 金龜珠衫을 천여 금으로 바꾼 후에 배에 오른다.

아가 말하기를 “조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요주에 끊이지 않으니, 비록 수로로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두관가 또한 왕래한 적이 없지만, 순풍을 만난다면 조주가 하늘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²⁹⁾

이는 비록 실행되지 않은 계획이지만, 조주와 요주의 거리를 가늠하면서 여차하면 부친의 적거인 조주에서 조부의 부임지인 요동에 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에 이루어졌던 요동 상인들의 빈번한 강남 왕래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수로이든 육로이든 그 거리를 단위로 혹은 소요 시간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지리 설정에 사실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나아가 중국 지리에 대한 작가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동백산과 동소남의 묘 등은 실재하는 사실 공간임에도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남과 가유진 부자는 모두 세거지인 선거현에 돌아와 부모의 삼년상을 치르는데, 이때 동백산의 동소남 사당을 중수하거나, 흰까치가 동백산으로부터 날아오거나 하는 등 동소남 묘와 관련된 삽화가 반복된다. 가유진의 경우는 향인이 그 효에 감동하여 동백산당을 생사당(生祠堂) 삼아 동효자 소남선생과 일체로 향사했다³⁰⁾고 되어 있다.

그런데 동백산은 강소성 소재의 회수의 발원지이며, 동소남의 묘는 정확한 소재를 알 수는 없지만 동백산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³¹⁾ 따

29) “吾聞，三國時，孫權送使，由海道達遼東，封公孫康。潮與遼，遠近何如”雲娥曰，“潮州沽客不絕遼，則不諳水路，杜管家未曾往來，須借順風，潮州不在天上。”(214면)

30) 鄉人感其孝，以桐栢山堂爲北平王生祠，春秋與董孝子邵南先生一體並饗。(379면)

31) 동소남은 당나라 덕종(德宗) 정원(貞元) 시절, 수주(壽州) 안풍현(安豐縣)의 효자이다. 소학 외편 제6 선행 실명륜 편에 韓文公이 <董生行>을 지었는데, 그 글에 “회수(淮水)가 동백산(桐栢山)에서 흘러나와 동쪽으로 치달려 천리를 굽이치면서도 쉬지 못하거든....淮水出桐栢山 東馳遙遙 千里不能休)이라고 했으므로, 동소남이 동

라서 동백산과 동소남의 묘를 결합시킨 것은 자연스럽지만, 절강성 태주부의 선거현에 동백산을 등장시키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동소남의 효와 의를 가남 집안과 연결시키려는 작자의 의도적 재배치라고 볼 수 있다.

3) 당대 풍속과 진회라는 풍류 공간의 반영

<옥수기>에는 작품이 배경으로 하는 당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다양한 풍속이나 풍물, 제도와 관련된 언급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혼례 풍속과 관련된 것이다. 남녀의 결혼이 서사의 핵심 화소로서, 작품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정혼 단계에서의 신물 교환, 며느리나 사위의 충족 조건, 폐백과 혼례 등 혼인의 전 과정이 소개되고 있다.

먼저, 매과 없이 당사자의 부모나 당사자 간의 정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예외 없이 신물로 빙폐를 삼게 된다. 신물이 대체로 장신구인 데³²⁾ 비해 가유진의 부모인 가남과 경부인은 거문고 곡조와 그 시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신물이 되고 빙폐가 된다. 또한 마치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듯이 “당시 사람들이 이를 두고 玉樹와 鷲尾의 빙폐라고 일컬었으며 지금까지 절강에 미담으로 전한다.³³⁾”고 서술된다. 가유점의

백산과 관련된 것은 사실이다.

32) 가유진은 화소저와의 정혼시 집안에서 세전하는 금봉(金蜂)을 끌러 주고, 진회에서 만난 두홍앵에게는 머리 위의 금잠(金簪)을 빼어 준다. 가유진의 처남인 왕공자 또한 길에서 만난 임소저에게 머리 위에 꽂은 백옥잠(白玉簪)을 빼어 준다. 명대에는 다른 장신구에 비해 은, 옥, 금으로 된 장식품을 머리에 치장하는 것, 즉 금은잠을 좋아했고, 남녀나 계층을 무론하고 하나씩을 꽂고 다녔다고 한다. 제롬 케를루에강, 『명나라 시대 중국인의 일상』, 이상해 역, 북폴리오, 2005.

33) 時人稱玉以樹鷲尾幣, 至今浙江, 傳爲美談 (197면)

경우, 문연각에서 근무하던 중 녹앵무(綠鸚鵡)가 날아와 옥환 한 짝을 떨어뜨리고 가자 이를 옷에 달고 다녔는데, 후에 알고 보니 그것은 운남(雲南)에서 조공 바친 옥환 한 쌍 중 하나로, 바로 파릉공주가 잃어버린 물건이었다. 이에 한바탕 소동을 겪은 후 유겸은 파릉공주와 혼인하게 된다.

당사자 간의 정혼이 아닌 경우 매과들이 부귀가의 혼사를 중매하는 과정에서, 여자는 용모, 재주, 문벌이, 남자는 지위, 부, 문벌이 혼인의 중요 조건으로 거론되고 있어, 남녀 공히 문벌이 중요한 조건임을 드러내 준다. 실제 신흥세력가인 나옹은 매과가 진처사택 소저를 언급하자, 처사는 너무 한미하여 힘을 실어줄 수 없다³⁴⁾고 한다. 또한 나옹이 화부에 보내는 폐백은 부귀가의 호화로운 폐백 풍속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³⁵⁾, 이는 당사자 간의 정혼시에 나타난 소박한 폐백과 대조된다.

이처럼 주로 남녀의 결연 과정에서 당대 사회의 혼례 풍속이 두드러져 나타나는 한편, 특정 공간, 특정 지역의 풍속이 전경화되기도 한다.

가유진 삼형제는 외할아버지 경상서의 생일연을 맞아 북경으로 올라가는 길에 친하 명승지라는 금릉 땅에 들러 잠시 놀다가기로 한다. 또한 금릉 땅의 주점에서 진회가 술과 풍류로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진회의 유명한 술집인 두사인 집을 찾아가고, 두사인 집은 포도주의 맛으로도 유명하지만, 상색주(上色酒)와 하색주(下色酒)를 빚어 두고 돈과 관계 없이 文才가 뛰어난 손님에게 상색주를 대접한다는 점에서 더 유명하다.

가유진 형제는 행인들이 일러 준 대로 살구나무꽃이 많이 핀 곳을 찾아가는데, 연자기 호수 동쪽에 자리한 두사인의 주점은 몇 채의 누각이 연이어 있고 단청이 성하여³⁶⁾ 그 규모가 크고 화려한 것으로 그려진다.

34) 處士太冷, 太冷, 吾賴不得, 賴不得(205면)

35) 青絲貫錢十萬, 其餘雜綵, 皆繡是, 而別送金幣一函.(206면) 珍珠小袴衣 (211면)

36) 自燕子磯東邊, 樓閣重重, 丹青隱隱, 皆杜家所占 (222면)

또한 그 안에서 제공된 술과 안주, 각종 기물이 진귀한 것은 물론 술병이나 술잔까지 모두 진주로 만든 것³⁷⁾이며, 내실의 방들은 모두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옥과 비취와 비단의 휘장이 드리워 있어³⁸⁾ 매우 화려하면서도 은밀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연자기 연못 위에 자리한, 진회에서 가장 으뜸인 청류당(淸流堂)에서는 가유진과 두 여성 간의 술과 음악, 시의 향유는 물론, 여장(女裝)과 남장(男裝)의 속고 속이는 유희가 펼쳐지는 등 이 진회에서의 나날은 유희의 연속으로 그려진다.

또한 이 부분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면서³⁹⁾ 서사의 전면으로 부각된다. 이때 진회는 명대 진회라는 지역이 지니는 사실적인 특성을 매개로 하여, 화려한 누각과 술과 여자로 대표되는 유희의 공간이자, 文才를 우선시하는 미인과 남성의 결연이 이루어지는 풍류의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⁴⁰⁾

37) 俄已, 珍果異肴, 皆非恒市之味, 盃樽床几, 亦是希有之物. 已而, 兩丫鬢, 錦衣珠佩, 奉玉罌而進. (224면)

38) 俄已, 設珠翠照外之帳於內戶.(225)/資粧, 皆飾以金寶, 帷帳, 設以錦繡, 瑞香津津, 金燭煌煌. (228면)

39) 장회로는 전체 14회 중 2회(4,5회)에 해당하지만, 분량 면에서는 전체의 1/5(86면/438면)에 해당한다.

40) 명대에 남경의 진회는 강남의 최고 아름답고 화려한 흥등가로 유명해서, 주작교 다리를 중심으로 서남에서 동북까지 십 리 길을 십리진회(十里秦淮)라고 부르기도 했다. 진회는 또한 그곳의 풍류 넘치고 문학적이며, 음악적이었던 기생들로 인해 많은 문인들이 모여들면서 풍류와 로맨스로 유명한 곳이기도 했다. <옥수기>의 경우, 두홍앵이나 설강운이 기생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들의 재능이나 성향 등은 진회의 기생들을 그대로 연상시킨다. 이렇게 볼때, <옥수기> 속의 진회는 당대의 풍속 공간인 진회를 거의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옥수기>에 형상화된 중국(中國)의 특징

1) 호족(胡族)에 대한 유연한 시각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옥수기>에서는 북로와의 전쟁 상황에서 전쟁 자체보다는 한족과 호족의 성향이나 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또한 한족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호족과 한족을 적절히 오가며 균형 있게 서술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호족과 한족이 비교적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호족 공주와 부마의 결혼을 둘러싼 갈등의 상황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북로 우두머리인 마선(乚先), 엄답(俺答)이 한족에 대해 나름의 자존심을 견지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엄답의 딸인 두 호족 공주는 평소에 중국을 동경해 왔고, 한족 남성에게 시집가기를 염원해 왔다. 또한 엄답이 딸들과 천자의 부마인 가유겸의 결혼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과 달리, 천자나 다른 한족에게 이 결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황후가 노하며 “우리 공주가 차마 어찌 胡女와 더불어 한 사람을 섬기리오? 유진이 비록 공이 있다 하나 조정에 욕을 끼쳤으니, 청컨대 먼저 대장군 직을 삭탈하시고 호 공주의 입성을 불허하소서.”⁴¹⁾ / 성부인이 성내며 “공주는 명위가 지중하신데, 어찌 저 개 같은 오랑캐의 딸과 함께 부마를 섬기리오?”⁴²⁾ / 상이 변색하여 “유진이 감히 胡女로 짐에게 고하지도 않고 부마에 약혼하니, 짐의 딸이 胡女와 부마를 함께 섬기는 것은 예모(禮兒)가 전혀 없고 동시에 황가(皇家)에 욕을 보이는 짓이다.”⁴³⁾

41) 皇后大怒曰“我公主，豈忍與胡女齊體以事人乎？有晉雖有功，貽辱朝廷，請先削大將軍之職，不許胡公主之入城。”(350면)

42) “名位至重，彼犬胡之女，何人敢與公主事駙馬乎”(352면)

43) 上變色曰“有晉，敢以胡女，不告於朕，而約婚於朕婿 使朕女胡女同事駙馬，全味禮兒 貽辱皇家。”(356면)

혼인을 둘러싼 이들 발화는 호족 여성을 포함한 호족 전체에 대한 극단적이 부정과 비하의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호족 측의 입장이나 발화는 없이 한족 측의 발화만 일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대등한 서술에서도 벗어나 있다.

호족 공주들의 증원과 그 인물에 대한 동경, 나아가 호족 여성에 대한 비하와 입성 불허 등의 일련의 양상들에서 한족과 호족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서술자는 중국 문화와 한족의 독보적인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북방 오랑캐 민족을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비단 <옥수기>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대부분의 고소설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옥수기>의 경우, 지배적인 폄하의 목소리 사이로 그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들이 간간히 들려온다.

“대장군이 벌을 받자 공주가 울면서 식음 전폐한다 하니 부너지정에 어찌 夷夏를 논하겠습니까? 응답이 이 일을 알면 창자가 끊어지고 뼈에 사뭇쳐 반드시 친히 황성 북문을 두드리고 그 딸을 빼앗으며 그 분함을 풀고자 할 것입니다.”⁴⁴⁾

“제가 먼저 이치의 옳고 그름을 설명한 후 승부를 내면, 우리나라에도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공주가 “華夷를 무론하고 빼어난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녹엽은 뛰어난 미모에 가무는 물론 거문고와 바둑이 궁중 안에서 제일가고, 말숨씨가 뛰어나며, 소사(小詞)를 잘 지으니...⁴⁵⁾

44) “自聞大將軍之待罪，悲泣不食云，父女之情，何論夷夏哉。俺答若知此事，腸斷切骨，必欲親叩皇城之北門，奪其女，而肆其忿。”(358면)

45) “妾先說曲直後，決勝負，足顯吾國有能言之人”(339면)/ 公主曰，“無論華夷，秀出之人，不學自爲”(366면)/ 有傾都之色 歌舞琴棋，獨擅宮中，言語慧巧，善作小詞。(418면)

오랑캐도 부녀간의 인지상정은 같다거나, 호족 중에도 능변가가 있을 수 있고, 재능 또한 화이를 불문하는 것이라는 이런 예시들은, 특히 두 호국 공주의 중국 입성 이후부터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두 호국 공주가 중국의 부마인 가유겸의 부인이 된다는 신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호국 공주일 때와 중국에 시집온 여성, 특히 부마에게 시집온 여성일 때의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 받아들임의 과정도 녹록지는 않다. 특히 호국 공주에 대해 처음부터 강하게 반감을 드러냈던 황후는 궁중 군례시에 등장한 호국 공주의 행차를 보면서 이런 귀한 기상을 지닌 여자가 호녀일 리가 없다며 재차 수궁하지 않고 냉소로 일관한다.⁴⁶⁾ 그러나 바로 그 황후가 궁중 군례의 막바지에 가서는 두 사람에게 반하고 감동하여 비로소 마음을 열고 부마를 함께 섬기는 것을 허락하는데⁴⁷⁾ 호족에 대한 변화된 시각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실제 이후 두 공주는 서사에서 부각되지는 않지만, 집안 여성들 간의 대화에 일정하게 참여하는 등 한족 여성들 속에서 나름의 입지를 점하게 된다. 이처럼 <옥수기>에서 호족에 대한 시각은 호족 공주의 중국 입성을 기점으로 변화되고 그 속에서 이전까지 강조되었던 한족과 호족의 구분 자체가 무화되는 듯 보이기까지 한다. 물론 작품의 중반부에서 호국 공주의 시녀인 녹엽에 애달아하는 유함에게 초왕이 “녹엽이 비록 약간 미모가 있다 하나 한낱 胡女 중에서 겨우 봐 줄 만할 뿐이니 내 어찌 원하겠는가⁴⁸⁾”라고 조롱하는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끝까지 견제의 줄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사

46) 皇后冷笑曰“何物胡姬，敢生此等人物耶？外面看之，極有貴人氣像，衣服言語 何處似胡女耶？”(365면)

47) 皇后因見兩人顏色之美，辭令之妙，雍容自如，宛有士女之風，大愛之，命使近前，不覺執手曰“汝姊妹，今之平陽公主。使人看看生愛。”因指公主曰“此卽巴陵公主，與爾同事駙馬之人，汝須拜見。”(372면)

48) “此綠葉畧有姿色，胡女中僅可者，吾豈欲之耶” (426면)

실이다. 그러나 그 역시 한바탕 웃음을 동반한 사기극 속에서 연출된 발화라는 점에서, 중반 이후의 호족에 대한 지배적인 시각은 분명 경직된 양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옥수기> 창작 당시의 중국 정황, 즉 호족의 청나라라는 정세와, 연행을 비롯한 다양한 교류 등으로 인해 호족이 재발견되던 시대적 분위기와 밀접할 것으로 보인다.

2) 당대적 현실 공간의 비중 강화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옥수기>에는 중국 전역의 지명들이 나타나고, 주인공들의 동선(動線) 또한 지리나 각 지역의 특성에 근거하여 사실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혹은 그리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닌 경우에도 그들의 출신지를 일일이 확인시키면서 동서남북의 다양한 지역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역과 지역 간의 거리와 이동 시간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막연하게 중국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이다.

또한 중국의 구체적인 공간들이 나타나는 작품들의 경우도, 대부분은 역사적, 관습적 공간의 비중이 강하고, 그 공간이 지니는 문화적 약호⁴⁹⁾와 주인공들의 행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등 공간적으로 과거와, 역사로 돌아가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옥수기>의 경우, 이런 약호화된 공간의 비중이 낮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퇴색되거나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곧 공간적으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⁵⁰⁾을 의미한다. 화소저의 여정 중에 나타나는 강소성 묘고산은 중국

49) 특수한 공간이 소설의 배경으로 자리잡을 때, 그 공간이 함축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나 특수한 의미소를 역시 텍스트 생성을 위한 약호로 기능하게 된다. 최경환, 『<옥미당기>의 텍스트 생성과정 연구』, 월인, 2002, p.33.

50) 이는 전범적 텍스트의 끊임없는 개입으로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은 역사성이 강화된

의 대표적인 도교 공간⁵¹⁾이며, 이는 작품 속에서도 비교적 충실하게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교적 공간에서 여성 주인공들이 신이한 도움을 받아 잠시 화를 피해 머물게 되는 것과 달리, 화소저는 이곳에서 해적의 침입과 늑혼가에서 보낸 무뢰배의 침입이라는 이중의 수난을 겪게 된다. 또한 가까스로 화를 면한 화소저는 묘고산을 떠나 다시 조주로 향한다. 결국 화소저의 여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도교적 공간의 신이성이 아니라, 수로상의 표류나 강가 혹은 산의 험지에 있는 도적떼의 출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다.

여성 인물의 시련 여정과 관련하여 전범적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동정호와 수월암의 경우도, 설강운의 풍류적 속임수 속에서 회화화되어 나타난다.⁵²⁾ 이 밖에 남악이나 천태산과 같은 도교적 공간도 남악 선고나 천태산 요도사의 존재와 주인공들의 도교에 대한 동경 등으로 인해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배경으로 형상화되지는 않는다.

방향에서 창작되었다(이기대, 앞의 논문, pp.52-53.)는 이기대의 견해와 거리가 있다. 적어도 <옥수> 경우에는 작품 전반의 전범적인 텍스트와 별도로 역사성이 거세된 공간 설정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51) 여기서 묘고산은 강서 지방을 지나면서 들르게 되었다는 점이나 각종 신이한 이적으로 유명하다는 점 등에서 강서(江西)의 마고산(麻姑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연숙은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마고와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산은 강서(江西)의 마고산(麻姑山), 호남(湖南)의 형산(衡山), 사천(四川)의 청성산(青城山) 등이지만, 우리나라 설화에서는 천태산 마고가 하나의 공식구로 되어 있고 이것은 <숙향전>의 영향이라고 하였다.(지연숙, “<숙향전>의 세계 형상과 작동 원리 연구”, 『고소설연구』 24집, 한국고소설학회, 2007, p.205.) 이에 의하면 작가 심능숙은 설화적인 전통보다는 중국의 역사적 전통에 근거해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2) 설강운은 가유진이 여장하고 자신을 속이자 자신 또한 물에 빠져 죽었다가 귀신이 되어 나타난 것으로 하고는, 자신이 연자기 호 물에 빠졌다가 동정호에 닿았는데 이때 동정 용녀와 유이가 남악 상선의 모임에 갔다오다가 자신을 겁박하려 하니 광풍이 불어 소상 군산의 기슭에 닿았고 그 위에는 황룡묘가 있어 이비를 만났다고 한다. 이 계교 속 여정은 전기소설인 <유의전> 내용을 패러디한 것이기도 하다.(이기대, 앞의 논문, p.261.)

<옥수기>에는 이런 역사적, 관습적 공간들의 자리에 당대의 현실적인 공간들이 교차되어 들어서 있는데, 먼저 북경 거리의 등장을 들 수 있다.

“내가 진정 의심했던 바이다. 관경(임공자)이 용모가 이와 같고 그 지닌 資裝이 심히 후하여 반드시 청루의 기생들과 간사한 부인네들에게 𠵼임에 넘어갔을 것이니, 내가 그 은밀한 일을 들춰낼까 하여 찾아오지도 않는 것이다.”⁵³⁾

“二更 쯤에, 큰길로 들어가 동쪽으로 향하여 화자교를 건너 서쪽으로 돌아 양류향으로 들어가니, 한 붉은 문이 있으되, 높다 높게 길에 임해 있고, 문지기들이 모두 흩어져 자고 있는데, 다만 풍경 소리만 바람결에 은은히 들려오는지라. 공자가 하늘을 향해 두 번 절하고 높은 문을 날아들어가니… 중략…감히 가던 길로 다시 오지 못하고 서쪽으로 향하여 달아나다 車房의 불이 밝음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왕백언(왕공자)이 문 밖으로 나와 파자향을 지나는데 문득 들으니 길거리의 사람들이 뛰어다니며 떠들썩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⁵⁴⁾

물론 여기에 나타난 거리명이나 거리의 성격이 사실인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정합성의 여부가 아니라 <옥수기> 속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다는 것이고, 나아가 그 양상은 곧 작가가 상정한 북경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 속에서 일단 북경 거리는 지방에서 과거보러온 선비들이 청루 기생의 𠵼임에 넘어가 가진 여비를 다 탕진해 버리는 향락적이면서도 도시의 몰인정과 상술이 드러나는 공간이고, 또한 후자의

53) “吾固疑之矣。觀卿，容兒若此 資裝甚厚，必爲青樓粉頭狹邪弓鞋所誘，恐吾據其隱事，不來相訪”(384면)

54) “夜二更，直入大道，向東而去，度花子橋，轉西而入楊柳巷，有一朱門，峨峨臨路，守門人，皆散臥而睡。只聞風磬聲隱隱，乘風而至，四無人聲。公子 向天再拜，飛入高門，若一道電光…中略…不敢向來路，一直向西而走，見車房火明，尋路而歸。”(385)/ 出門，過巴子巷，忽聞路人，奔走喧傳曰。(386면)

예를 통해 나타나듯이, 여러 거리가 사방으로 나 있고 부귀가의 으리으리한 저택이 자리한, 상당히 변화하고 성대한 수도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⁵⁵⁾

이와 함께 <옥수기>에 새롭게 등장한 당대적 공간은 요동이다. 사실 <옥수기>에서 실제 침입은 몽고족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침입 경로 또한 토목지변이 일어났던 토목보 부근의 선부와 북경의 관문인 자형관으로, 북서쪽 국경 부근이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요동 지역의 견고한 수비 문제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요동 자체가 반복적으로 다루어진다.

“화각로께서 북으로 요양(遼陽)에 나가 오랑캐를 막으셨다.”/ 이에 화경춘이 요동(遼東)에 좌천되어 있다가……천자가 화경춘을 다시 불러 선위사(宣慰使)를 삼아 요동(遼東)을 진무하게 했다.

소저가 “가형께서 무예에 정통하니 저를 데리고 요동에 갔다가 다시 연안부에 가서 공을 세우고자 합니다.”하니, 화상서가 “네가 요동에 가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마선이 변방을 엿보고 있으니 나이 어린 서생이 어찌 그런 험지에 가겠느냐.”⁵⁶⁾

실제 작품 속에서 북로나 호족의 개념 속에 몽고족과 여진족은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북로나 호족은 몽고족이나 여진족을 포함하는 북방 오랑캐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⁵⁷⁾ 그러므로 이와 같이 반복되는 요동 방비의 강조는 몽고족보다는 여진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55) 연행록 속에서, 18세기 초반에 연경이 실용적인 물물과 관련하여 소개되었던 데 비해, 후반에는 유락적이면서 화려한 관광지의 이미지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이화연구총서4, 혜안, 2007, p.79.

56) 小姐對曰, “今率小生赴遼東後, 欲往延安府入功.” 尙書喜曰, “但賢輩不可赴遼. 也先嘗有窺邊之志, 年小書生, 何爲入此險地”(278면)

57) 조광국 또한 이런 측면에서 심능숙의 대청의식을 지적한 바 있다. 조광국, 「<옥수기>에 나타난 중국인식」, 『한국문학논총』 31, 2002, pp.146-147.

할 수 있다. 또한 그런 점에서 요동의 강조는 현종 당대보다는 명칭 전환기의 격동지였던 요동에 대한 관심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⁸⁾ 명대를 배경으로 하는 다른 소설들에서 북방만이 아닌 남방이나 서방의 오랑캐와 그 방비를 다양하게 다루는 데 비해, <옥수기>에서는 유일하게 북방의 오랑캐와 북쪽 변방만을 다루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옥수기>에서는 역사적, 관습적 공간의 비중이 약화되고 그 자리를 당대적 현실 공간이 대신하고 있으며, 또한 요동의 부각과 함께 북방 위주의 변방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사족 남성의 유희적 일상 재현

<옥수기>에는 남녀의 결연과 관련하여 당대의 혼례 풍속이 두드러지고, 당대의 유희적 풍속을 대표하는 진회가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진회라는 공간은 실상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공간에서 이루어진 가유진과 두 미녀 간의 결연 양상이 이를 전후로 나타나는 남녀 간의 결연 양상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가유진의 재능에 반해 결연한 두홍앵은, 설강운의 마음을 잡으려면 고악부(古樂府) 한 편을 지어 감평(鑑評)하게 하라고 권유한다. 이에 가유진은 통소와 거문고의 협주곡에 붙인 서주곡(西州曲)을 짓는데, 두홍앵은 字음이 모두 六律과 六呂에 합당하다고 칭찬하고, 이를 받아본 설강운 역시 전대의 인물들과 비교하여 극찬하며⁵⁹⁾ 결국 자신이 그토록 찾던 文

58) 이보다 뒤에 창작된 남영로의 <옥루몽>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영락제를 배경으로 삼은 듯한데, 영락제의 활발한 변방 정벌과 관련하여, 명 전반에 걸친 변방 민족과의 관계가 총합적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면서도 북방 오랑캐들의 비중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홍노의 침입이 안문→태원→곤주의 침입 경로를 보이는 데 비해, 홍노에 결탁하는 척발랄의 침입은 몽고→요동 광녕→의 침입 경로를 보여 이 역시 요동 지역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才를 얻게 된다.

작품 초반부의 가남과 경소저의 결연 과정에서 역시, 가남은 거문고 곡조에 대한 실로 전문적인 소견을 보이고⁶⁰⁾, 이후 경시랑의 요청에 의해 십이결(十二關)이라는 琴曲을 작곡하는데, 이 곡조에 화답을 하게 된 경소저 또한 가남에 대적할 수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결말부에 이르러 유희와 호희인 녹엽은 보살만(菩薩蠻)과 장상사(長相思) 가사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확인하고, 이후 밑에 과정에도 시와 노래가 함께한다.⁶¹⁾

남녀의 결연에 시와 음악이 매개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이처럼 창작은 물론 비평이 두드러지고 구체적인 양상을 띠는 것은 흥미롭다. 또한 이런 자리에는 어김없이 술이 매개되고 있다.⁶²⁾

가유진 형제는 금릉의 주점에서 상인들이 주고받는 말들 “진회에 가면 한번 취하지 않을 수 없다”⁶³⁾, “두사인 집에서 빚은 포도주는 맛이 진기하고 색이 선명해 단지 이 근처에서 뛰어난 맛일 뿐 아니라, 천리 안에서는 이 같은 술이 없다.”⁶⁴⁾ 등등에 술깃해 진회에 들르기로 한다. 이처럼

59) 자건의 신운, 태백의 풍골, 낙천의 정사, 이귀년의 음늘 4명을 합쳐도 못 미치며, 곡분양의 完福과 배진공의 晚節보다도 위에 있다고 한다.(美人曰, “非一人所可疑. 子建神韻, 太白風骨, 樂天情思, 李龜年音律, 合此四人, 然後可作此曲. 吾欲別此二人之上, 郭汾陽之完福, 裴晉公之晚節, 此却有餘.” 241면)

60) 凡琴非七絃, 則爲五絃, 今大人所奏之琴六絃, 而武絃兼正聲餘音, 則實七絃也. 此曲 文絃方絃大絃爲用, 而上下武三絃爲助(194면)

61) 녹엽으로 하여금 ‘碧雲天末之詞’를 노래하게 하니, 그 소리가 가늘고 길게 이어져 마치 우는 것 같고 하소연하는 것 같았다.(命綠葉歌碧雲天末之詞’ 歌聲嫋嫋, 如泣如訴, 420면)

62) 더 나아가 음악이나 시가 없는 경우라도 술은 언제나 사족의 일상과 함께 한다. 녹혼을 피해 화공자로 변성명한 화소저가 왕시랑 집에 머물 때, 왕시랑의 아들인 왕공자가 화공자의 처소를 오가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느 날 왕공자가 모부인 방에서 몰래 빼온 벽선주를 들고 찾아가자 화소저가 병중이라는 이유로 오늘은 술을 못먹겠다고 사양하는 대목은, 이들의 교유에 술이 함께 했음을 추측하게 한다.

63) 今午往秦淮, 則不可不一醉(221면)

가유진 형제가 진회를 찾아가게 된 것은 무엇보다 좋은 술을 마셔보고 싶어서이다. 그러면서 주막 주인이 상색주를 얻어 먹지 못할 거라 하자 자신의 문제라면 마고주도 바로 먹을 수 있다⁶⁵⁾고 너스레를 떨기도 한다. 이후 서주곡을 짓거나 시를 지을 때, 두 미인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여지없이 일단 몇 잔 씩 술을 돌려 마시거나 滿酌을 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다시 길을 떠나는 날에도 포도주를 많이 빚어 놓고 기다리라는 말⁶⁶⁾을 남기고 떠난다. 이처럼 진회 삽화는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고 있으며, 특히 반복적으로 名酒와 文才가 같은 가치로 평가되고 있어 그 자체로 풍류적인 양상이다.

이와 같은 술과 술자리의 여흥은 결말부의 유함과 관련된 일련의 삽화들에서 극에 달한다. 유함은 호희 녹엽을 보고 한눈에 반하지만 신분 때문에 마음만 줄이다가 이를 안 형 유겸이 초왕의 짓인 양 녹엽 납치극을 꾸미자, 녹엽을 되찾기 위해 천자 앞에 나아간다. 천자 앞에서 술에 취해 초왕의 행동이 너무 심하다고 하소연하던 유함은, 천자가 초왕을 벌주고 녹엽을 다시 뺏어 주겠다고 달래자, 술에 취해 일어나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만약 녹엽을 뺏어준다면 천자는 요순 같은 임금일 거라고 한다.⁶⁷⁾

여기에서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술자리의 여흥에 궁중과 천자까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정도 또한 지나치게 ‘거나하다’는 것이다. 천자와 신하간의 술자리는 이보다 앞서 가유진 형제가 문연각 근무를 할 때도 나타난다. 물론 이처럼 지나치게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이때도 가유진은 취한 상태이다. 또 그 때문에 천자가 하사한 여지(荔子:리찌)를 왕부

64) 有杜舍人家, 釀葡萄酒, 味奇色鮮, 非徒此間尤味, 方千里之內, 無如此酒.(222면)

65) 若以文買酒, 莫道葡萄酒, 雖麻姑天日酒, 酬應不暇.(222면)

66) “娘子待吾歸, 多釀葡萄, 以作喜酒”(273면)

67) 上曰, “朕奪綠葉, 歸卿矣”, 有咸欲起拜, 醉不能起, 俯伏曰, “然則陛下堯舜之主也” 上大笑.(426면)

인에게 건내고는 왕부인이 먹는 것을 슬취한 눈으로 지켜보며 희롱한다. 물론 여기에는 여지라는 과일이 환기하는 분위기⁶⁸⁾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궁중 안 그것도 바로 천자 앞에서 여자 때문에 주시를 부려도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천자가 재밌어 하면서 여기에 동참하는 상황은, 결국 천자 또한 남성 주인공들의 성향과 다를 것이 없음을 나타낸다. 유함의 소원대로 녹엽을 첩으로 들이게 되자, 질투로 노기등등한 성부인이 비꼬며 하는 말, “천자도 참 다사하여 신하의 첩을 다 중매하니 이 같은 천자는 고금에 없는 바로다.⁶⁹⁾”는 바로 이런 유흥적 분위기, 나아가 풍류적 면모가 천자에게도 연장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처럼 진회라는 풍류 공간을 정점으로 <옥수기>에는 시와 음악의 창작과 비평, 술자리의 여흥이 전경화되고 있다. 특히 이들을 향유하는 주체는 가유진 형제를 비롯한 사족 남성이며, 향유의 대상과 양상 또한 사족 남성의 일상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옥수기>에 형상화된 풍속은 무엇보다 사족 남성의 유흥적 일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개별적 경험에 근거한 이국취향의 형상화

<옥수기>가 창작된 19세기에는 18세기부터 본격화된 연행과 그 기록들을 통해 청나라와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청나라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

68) 양귀비의 과일이라고 불리기도 한 여지는 당현종과 양귀비의 향락적 관계를 함의하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명 현종의 만귀비가 양귀비에 비교되던 역사적 정황도 매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69) “天子多事，盡媒人臣之妾，如此天子，古今所無”(428면)

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이론이 지배적이었다.⁷⁰⁾ 화이론은 華夷라는 민족과 그 민족의 문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기저에 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옥수기>에 명나라를 대표하는 한족과 북방 오랑캐를 대표하는 호족에 대한 구분이 두드러지는 것은, 그 자체로 민족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로와의 전쟁 상황에서 전쟁 자체보다 호족이나 한족 나름의 성향과 문화, 그리고 상대 민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호족 여성의 외양이나 복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그와 같은 관심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며, 호족 여성에 대한 묘사는 객관적인 양상이다.

이는 곧 화이에 대한 시각이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그 속에서 호족 또한 인지상정은 같다거나 호족이라도 뛰어난 인재는 있다는 식의 화이에 대한 유연한 시각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는 당대의 지배적인 시각은 물론 <육미당기>나 <옥루몽> 등의 같은 시기 한문장편소설에서 드러나는 견고한 화이관과도 대별되는 것이며, 나아가 <옥수기>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견해도 거리가 있다.⁷¹⁾ 이와 같은 변별적인 시각은 무엇보다 연행 등을 전후하여 화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게 된 시대적 분위기와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런 점에서 <옥수기> 속의 중국은 한족의 명대로 설정되어 있으나 여기에 작가의 당대인 청대가 포개져 있다고 할 수 있다.

70) 19세기의 연행에서 나타난 조선 사신의 태도에서도 여전히 화이론에 근거하여 중국에서 오랑캐성을 찾아 멸시하고자 하는 것이 나타난다. 김유경, 「19세기 연행문학에 나타난 중국 체험의 의미-전,중반기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1집.

71) 김종철은 <옥수기>의 작가 심능숙의 중화주의와 화이론을 논하면서, 그가 시사를 통해 노년의 박지원과 교류할 수 있었음에도 그의 변화된 시각에는 영향을 받지 못했다(김종철, 「19세기 중반기 장편영웅소설의 한 양상-〈옥수기〉, 〈옥루몽〉, 〈육미당기〉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40, 1985, p.100.)고 했는데, 본고의 관점에서는 박지원과의 일대일 영향 관계는 아니라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18,9세기에는 역사지리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지리서나 지방지가 대량 유입되었으며⁷²⁾, 1790년에 입연하여 중국 지역의 답사를 통해 지리 역사적 사실을 고증한 서호수(徐浩修)의 『연행기(燕行記)』⁷³⁾와 같은 연행 기록의 영향 등으로, 중국에 직접 가보지 못한 경우라도 마치 가본 듯한 지리적 지식을 과시할 수 있었다. <옥수기>에 중국 전 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주인공들의 동선(動線) 또한 대부분 지리지적 사실에 근거하여 배치되고 있으며, 지역 간의 거리와 소요 시간 등이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 또한 기본적으로 당대의 이와 같은 학문 동향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 <옥수기> 속의 중국은 모호하거나 신비한 색채가 견혀지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는 같은 시대적 동향 하에서 창작된 <육미당기>나 <옥루몽> 등에서 신비하고 환상적인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는 것과 대비적인 양상이다.

그런 한편에 기존에 중요한 공간으로 부각되었던 역사적, 관습적 공간의 비중이 약화되고 북경이나 요동과 같은 당대적 현실 공간의 비중이 강화되고 있다. 요동의 경우, 몽고족과 여진족이 구분 없이 함께 거론되거나 요동에 대한 방비가 지속적으로 강조된다는 점에서, 명칭 교체기의 변방에 대한 관심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경이나 요동이 모두 연행의 핵심 경로였다⁷⁴⁾는 점에서, 이들 지역의 부각은 연행을 둘러싸고 이들 지역에 관심이 집중된 당시 정황과도 일정하게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럴 때 이 지역들은 명대라는 과거의 지역이기보다는 작가의 당대인 청나라에 대한 관심이 투영된 지역일 수 있다. 이는 서방이나 남방의

72) 서경희, 앞의 글, p.122.

73) 임유경, 「서호수의 <연행기>: 지식과 정보의 보고(寶庫) , 이혜순 외 공저, 『우리 한문학사의 해외체험』, 집문당, 2006, p.308.

74) 김현미, 앞의 책, p.58.

변방은 사라지고 요동을 중심으로 한 북방의 변방만이 부각되고 있는 것에서 좀더 분명하게 확인된다.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연행의 결과, 특히 중국의 문물이 대량 유입되면서 당시 문인들의 새로운 취향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또한 이에 심취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는데, 그 중 녹앵무는 이덕무가 연행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이덕무는 녹앵무에 심취하여 『綠鸚鵡經』이라는 책까지 펴낸 바 있다.⁷⁵⁾ <옥수기>에는 가유겸과 공주의 혼사 과정에서 녹앵무가 중매의 역할을 하는 화소가 나타난다. 이는 그 자체로 이국정취를 자아내지만, 무엇보다 녹앵무나 『녹앵무경』이라는 책이 화제에 올랐을 18,9세기 당시의 정황을 환기한다. 이때 녹앵무는 중국의 문물임은 분명하나, 역시 청대 문물에 대한 관심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중국의 대표적 과일인 여지나 포도주, 북로의 조공물인 홍보로 등이 다양하게 언급되면서 실제 중국에 있는 듯한 이국정취를 환기하고 있다.

또한 명청대의 유명한 흥등가였던 진회 지역의 풍속을 사실적으로 매개하여 작품 전반의 풍류를 관통하는 핵심 공간으로 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6,7세기 조선 문인들의 강남 지역, 특히 절강 서호에 대한 열기는 17세기 애정전기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서호를 비롯한 항주와 소주는 이후 또 하나의 관습처럼 17세기의 다른 작품은 물론 그 이후의 많은 작품들 속에서 낭만적이고 유희적인 공간의 대표적 형상을 띠게 되었다. 이는 소주와 항주가 작품의 핵심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는 19세기 한문장편소설 <옥루몽>에서 극치에 달한다. 이에 비해, <옥수기>에서는 절강 유역에서도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태주를 세거지로 설정하고, 무엇보다 유희적, 풍류적 공간으로 소주나 항주가 아닌 금릉땅 진회를 선택하고 있다. 소주나 항주의 설정이 집단적으로 향유된 관심사에서 비롯된 것

75) 정민,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이라고 할 때⁷⁶⁾, <옥수기>에 진회가 설정된 것은 작가의 개인적 관심사에서 비롯된 것이 된다.

또한 진회라는 공간을 축으로 사족 남성의 유희적 일상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시와 음악의 창작과 비평, 일상적인 술자리와 그 적나라한 묘사 등은 이를 사실적으로 재현해 내고 있다. 특히 후반부에 나타난 가유함의 일상은 명청 시대 문인들의 풍류적 일상과 많은 부분 겹쳐진다.⁷⁷⁾ 나아가 19세기 조선 문인인 작가 심능숙의 풍류적 삶과도 그대로 겹쳐진다. 실제 가남의 병폐가 되었던 ‘십이결’이나, 설강운의 마음을 열었던 ‘서주곡’, 그리고 녹엽과 화답했던 ‘보살만’과 ‘장상사’ 등은 심능숙 본인의 작품이기도 하다.⁷⁸⁾ 작품 속에 작가와 작가의 현실이 직접 개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옥수기>의 중국 배경에 나타나는 이국취향의 특징은 무엇보다 18,9세기의 시대적 동향에서 매개된 현실적 맥락의 동경이

76) 실제 절강 유역 외에도, 대중적으로 읽혔던 <삼국지연의>의 배경 지역 역시, <숙향전>, <창선감의록> 등 17세기 작품은 물론 이후 시기까지도 작품의 중심 지역으로 활용되고 있으며(지연숙, 앞의 글, p.200.), 그 밖에 중국의 역사적, 종교적 공간들 또한 전 시기에 걸쳐 관습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고소설의 중국 배경에 나타난 공간 설정은 대체로 집단적으로 향유된 관심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7) 유함은 형인 부마 유겸이 공주궁에 동산을 새로 만들어 꽃나무와 진귀한 돌을 벌여 놓고 그 가운데 취진헌(聚珍軒)을 짓자, 매일 왕래하면서 유겸과 함께 투호(投壺), 바둑(彈碁), 품죽(品竹), 조사(調絲)를 즐긴다. 명말청초의 소품가들이 시문 속에서 이와 같은 일상생활의 취미가 주는 정취를 한껏 추구하였고, 원평도의 『병사(瓶史)』 등이 열독되면서 만명문인들의 생활을 따르는 취향도 나타났다는 점(강혜선, 「심능숙 산문의 소품적 성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p.178.)에서 이런 일상의 재현 또한 당대 문인의 취향과 연결될 수 있다.

78) 심능숙의 문학적 삶과 일상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들을 참조했다. 김종철, 「심능숙의 <옥수기>」,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1993. 장효현, 「심능숙의 생애와 문학」,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 출판부, 2002. 강혜선, 앞의 글.

자 취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작가 개인의 개별적인 경험과 인식에서 비롯된 관심사가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이국취향의 개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⁷⁹⁾

<옥수기>가 명대 현종대를 배경으로, 내부적으로는 이오의 반란, 외부적으로는 북로의 침입이라는 정치적,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하여 가유진이라는 남성 주인공의 입공과 가문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영웅 서사를 거시적인 흐름으로 하면서도, 정치나 전쟁 또한 결연의 계기로 작용하는 등 무엇보다 남성 주인공의 결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과정에서 인물들의 일상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라는 점⁸⁰⁾은 바로 그러한 이국취향과 긴밀히 연결된다.

또한 그런 점에서 <옥수기>의 중국 배경은, 중국의 역사나 정치와 같은 거대 담론보다는 그 땅에 존재하는 개인과 그 일상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¹⁾ 이는 <옥수기>가 지식인 작가에 의해 창작된 한문장편소설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는 측면이다. 곧 지식인으로서의 이념이나 세계관보다는 한 개인으로서의 취향과 동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근대 이행기적 중국 배경의 한 양상이라

79) 같은 명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은 주로 치적으로 유명한 영락제를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다. 18세기 장편가문소설(박영희, 『長篇家門小說의 明史 수용과 의미-靖難之變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과 19세기 작품인 <옥루몽>, <옥수기> 등이 그러하다. 이에 비해 그리 주목받지 못했던 현종대를 배경으로 한 점도 마찬가지이다.

80) 김경미는 <옥수기>가 이념이 아닌 웃음과 놀이라는 일상의 부각을 통해 근대적 요소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것이 19세기 한문소설의 새로운 모색이라고 보았다. 김경미(2004), 앞의 글, p.295.

81) 이 지점에서 <옥수기>의 중국 배경은 시간보다는 공간에 초점을 두고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혜란의 논의(조혜란, 『<옥루몽>의 서사미학과 그 소설사적 의의』,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를 참고할 때, 이는 같은 시기의 한문장편 소설인 남영로의 <옥루몽>이 거둔 소설사적 성취와 일맥한다.

고 할 수 있다.

5. 결론

<옥수기>는 심능숙이라는 상층 문인 작가에 의해 19세기에 창작된 한문장편소설로, 명나라 현종대를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고소설의 중국 배경이 이국취향의 한 양상이라는 전제 하에, 19세기 작품인 <옥수기>의 중국 형상화 양상을 특징짓고, 나아가 이를 19세기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옥수기>의 중국 형상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옥수기>의 중국 배경을 역사와 정치라는 시간의 측면에서 접근할 때, 대체로 과거지향이며 당대인의 집단적인 의식 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에 비해 인물과 지리, 풍속이라는 공간의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과거보다는 작가를 둘러싼 당대가, 집단적 의식 성향보다는 작가 개인의 취향이 좀더 명료하게 부각되는 작품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대의 일반적인 화이관에서 벗어난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같은 시기의 한문장편소설에 나타난 화이관과도 대비되는 양상이다.

<옥수기>의 중국 배경이 드러내는 이와 같은 특징은 19세기라는 시대상이나 상층 문인 작가의 작품이라는 점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옥수기>와 유사한 환경에 놓인 작품들, 곧 <삼한습유>, <육미당기>, <옥루몽>과 같은 19세기 한문장편소설들에 대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옥수기>의 중국 배경이 지닌 의미와 위상은 물론, 근대 전환기인 19세기의 중국 배경이 지니는 시대적 의미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1999, pp.253-340.
- 강혜선, 「심능숙 산문의 소품적 성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pp.157-188.
- 김태준, 『증보조선소설사』, 박희병 교주, 한길사, 1990, pp.1-280.
- 김경미, 「19세기 한문소설의 새로운 모색과 그 의미」, 『한국문학연구』 창간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0, pp.203-234.
- 김경미, 조혜란 역주, 『19세기 서울의 사랑-절화기담, 포의교집』, 도서출판 여이연, 2003, pp.1-255.
- 김경미, 「<옥수기>연구-이념적 요소에 대한 해석과 새로운 모색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pp.275-298.
- 김유경, 「19세기 연행문학에 나타난 중국 체험의 의미-전,중반기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1집, 열상고전연구회, 2005, pp.31-64.
- 김종철, 「19세기 중반기 장편영웅소설의 한 양상-<옥수기>, <옥루몽>, <육미당기>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11, 1985, pp.3088-3108.
- 김현미, 「18세기 연행록 속에 나타난 중국의 여성」, 이혜순 외 공저, 『우리 한문학사의 해외체험』, 집문당, 2006, pp.311-332.
-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이화연구총서4, 혜안, 2007, pp.1-307.
- 남정희, 「조선후기 문인의 明·淸 서적 수용과 독서의 경향성 試考」, 『한국문화연구』 8,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pp.61-93.
- 박영희, 「長篇家門小說의 明史 수용과 의미-靖難之變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pp.191-216.
- 서경희, 「<옥선몽>연구-19세기 소설의 정체성과 소설론의 향방」,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4, pp.1-215.
- 손우경, 「Baudelaire의 Exotisme 연구」, 『연구 논문집』 40, 효성여자대학교, 1990, pp.55-74.
- 우쾌제, 「<南征記>의 南征路에 나타난 西浦의 中國 認識 考察」, 『국어국문학』 115, 국어국문학회, 1995, pp.59-82.
- 이기대, 「19세기 한문장편소설 연구-창작 기반과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pp.1-219.

- 이병직, 「19세기 한문장편소설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1, pp.1-210.
- 이산호, 「샤또브리앙의 낭만주의적 이국취향 연구」, 『프랑스학 연구』 20권, 프랑스 학회, 2001, pp.143-165.
- 임유경, 「서호수의 <연행기>: 지식과 정보의 보고(寶庫)」, 이해순 외 공저, 『우리 한문학사의 해외체험』, 집문당, 2006, pp.283-310.
- 장효현, 「심능숙의 생애와 문학」,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 출판부, 2002, pp.405-441.
- 정민, 「16,7세기 조선 문인지식인층의 江南熱과 西湖圖」,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pp.281-306.
- 정민,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pp.1-445.
- 조광국, 「<옥수기>에 나타난 중국인식」, 『한국문학논총』 31, 한국문학회, 2002, pp.131-150.
- 조광국, 「19세기 고소설에 구현된 정치이념의 성향-<옥루몽>, <옥수기>, <난학몽>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6, 한국고소설학회, 2003, pp.45-70.
- 조혜란, 「<옥루몽>의 서사미학과 그 소설사적 의의」,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pp.225-255.
- 지연숙, 「<숙향전>의 세계 형상과 작동 원리 연구」, 『고소설연구』 24집, 한국고소설학회, 2007, pp.191-217.
- 최경환, 『<육미당기>의 텍스트 생성과정 연구』, 월인, 2002, pp.1-268.

ABSTRACT

China, a Foreign Country Described in <Oksugi>

Tak, Won-Jong

The curr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historical meaning of China's image described in <Oksugi> written in the 19th century.

Tendencies and culture of the Han race representing the Ming Dynasty and the Ho race representing north barbarians are focused in <Oksugi>. Meantime, although a biased viewpoint ignoring the Ho race was presented, the viewpoint was transformed into a flexible one from a scene in which an empress admired two princesses of the Ho dynasty during a court joint wedding ceremony. In <Oksugi>, reality was granted for geographical setting while historical and customary factors were weakened and real places like Beijing and Yodong were located. Jinhoe in <Oksugi> was expressed as a space for entertainment and merrymaking based on realistic characteristics of Jinhoe during the Ming Dynasty. In addition, manners and customs described in <Oksugi> reproduced merrymaking daily life of the Sa race men realistically.

The flexible view on the Ho race, reinforcement of contemporary real spaces or Nokaengmu or Hwaso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conditions of the 18th and 19th centuries in which banquets were prevailing. The fact that Jinhoe of Geumreung region was selected as space for merrymaking entertainment was reflection of the writer's personal interest. In conclusion, characteristics of exotic taste expressed in the Chinese background of <Oksugi> was longing and taste of realistic connection related from historical trends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Also interests derived from the writer's personal experience and recognition were reflected first, which means personalization of exotic tastes.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is is an aspect of modern transitional Chinese

background.

Key Words Exotic tastes, Flexible viewpoint, Geographical setting, Real places, Merrymaking daily life, Personalization of exotic tastes, Modern transitional Chinese background.

논문투고일 : 2008. 3. 30
심사완료일 : 2008. 4. 20
게재확정일 : 2008. 5. 4